

## NH Bank legal brief

# 은행 관련 최근 입법동향

2022. 12. 28.

은행 관련 법률은 자주 개정되지는 않지만 일단 개정되면 은행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개정 전으로 돌이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은행 관련 법률의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리걸브리프에서는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며 은행 관련 법령의 최근 제·개정 동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은행법」 전면 개정 - 금융위 개정안 마련 중

- 은행법 개정사항에 대한 서울대 금융법센터 연구용역 완료('22.11월)
- 은행 관련 주요 이슈 : ❶금산분리 규제, ❷업무위탁 규제
  - 금융위는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위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심의할 예정
  - ※ 참고자료 :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협력을 강화', 금융위 보도자료('22.11.15.)

## 2.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

- 금융위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철회로 은행 관련 이슈 감소
- 다만, 전자금융거래업자(이하 '전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법적근거 신설이 예상되며 당행 카드분사 관련 경쟁 심화 우려 있음
- ※ 참고사항 : 전자금융업자는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소액후불결제 업무 수행 중

### 3.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 - 내년 초 개정안 마련 예정

- 금융위는 최근 발표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을 반영한 개정안 마련 예정
-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관리의무 부과, 이사회에 내부통제 역할 강화, 책임지도 도입
- ※ 참고자료 :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세미나 자료, 금융위 보도자료  
(‘22.12.20.), 내부통제 개선방향 관련 은행권 의견

### 4.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금융위는 개인채권자 보호를 위해 국회에 법률 제정안 제출(‘22.12.14.)
-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채무자의 연체부담 완화, 채무자의 과도한 추심부담 완화 등 은행관련 규제 강화 법안이므로 향후 대응 필요
- ※ 참고자료 :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간 권리·의무의 균형을 위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보도자료(‘22.12.13.)

### 5.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정 - 기획재정부 개정안 마련 중

- 기재부는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전면 개편하여 자본거래 시 사전 신고의무 완화, 형사책임 수준 완화 등에 관한 신외환법 제정 계획을 발표하고 세미나 개최(‘22.7.5.)
- ※ 참고자료 : 「신(新)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결과」, 기재부 보도자료(‘22.7.5.)

### 6.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완료

- 금융위는 클라우드 이용절차 합리화 및 망분리 규제 완화를 위해 TF 구성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완료(‘22.11.23.)
- ※ 참고자료 : 「클라우드 이용절차 합리화 및 망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 보도자료(‘22.11.23.)

### 7.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안에 대한 대안(위원회안) 의결(‘22.12.5.)
- 일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전송요구권 도입이 주요 내용이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음. 끝.